

35장. 베엘의 하나님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베엘로 올라가라고 하셨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루스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가 루스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엘’이라고 불렀다.

35장에는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 라헬의 죽음,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었고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이 나온다. 이제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일로 넘어갈 것을 암시한다.

1. 하나님의 명령과 야곱의 순종 (35:1-7)

1) 하나님의 명령 (35:1) -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단을 쌓으라

세겔의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놓여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가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상기시키며, 베엘로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단을 쌓으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서 “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독특하다. 족장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 이 경우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면 베엘에서 단을 쌓겠다고 서원한 일이 있으므로 그 서원을 이루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2) 야곱의 순종 (35:2-4)

야곱은 베엘에 오르기 전에 가족과 그 거느린 모든 이들을 향하여, 집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각자 자신을 정결케 하며 옷을 갈아입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보면, 야곱이 서원을 갚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던 또 다른 이유가 가족들의 우상 숭배였음을 알 수 있다.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왔는데, 그러한 방식의 삶이 라헬만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에게도 퍼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우상을 늘 끌어안고 다니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저하였던 것이다.

야곱은 식구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하면서, 그 목적이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자신이 가는 길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이라는 말은 그가 베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28:20)라고 서원한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절박한 심정에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므로 이제 자신이 서원을 지킬 차례가 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참조 35:7).

야곱이 말하자 식구들은 모두 자기 손의 우상을 내어놓았다. 라헬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훔쳐온 드라빔을 내어놓았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우상을 감추고 잘 따르지 않았을 테지만, 생존이 걸린 큰 위험에 봉착하자 그들은 모두 손에 있는 우상을 내놓고 귀고리도 내어놓았다. 우상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모두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들을 녹여서 다른 것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시체를 묻듯이 그는 그것들을 묻어버렸다(35:8).

3) 하나님의 안전 보장과 엘베엘 (35:5-7)

야곱의 집이라 하면 전에는 평화로운 목자들의 가정으로 알려졌으나, 이제는 피비린내 풍기는 약탈자의 대명사처럼 될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보복하려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베엘로 다시 오기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는 세겔에서 베엘로 오르는 그 길에도 함께하시면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안전하게 베엘에 올라갈 수 있었다.

야곱은 뻔엘에 오른 다음에 그곳을 ‘엘뻔엘’ 즉 뻔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단순히 뻔엘로만 부르지 않고 (참조. 35:15) 엘뻔엘이라고 부른 것은 언약을 친히 창설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기대 가운데서 그곳을 ‘엘뻔엘’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2. 드보라의 죽음 (35:8)

드보라가 갑자기 등장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은 기록이 되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은 후에 지나가는 말로만 언급이 되고(49:31)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 대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이 그가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은, 전에 그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남편을 속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음을 암시한다.

3.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심 (35:9-15)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9-13절) 야곱이 순종하는 형식으로 언약이 새롭게 된다(14-15절).

사실 야곱은 세겔에 거주하다가 뻔엘로 간 것이지만, 성경 기자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하면서 세겔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1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는 일은 뻔엘로 완성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셨다(참조. 34:18). 말하자면 세겔은 야곱에게는 암흑기와 같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야곱을 뻔엘로 부르신 여호와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정해 주셨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얻었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에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서 재확인하여 주셨다.

둘째,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을 하였고(17:1-8)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28:3) 하면서 그 이름으로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뻔엘에서 야곱에게 사용하셨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자손과 땅에 관한 것이다. 야곱에게는 이미 열두 자녀를 주셨으나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특히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도 그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상의 계시의 내용은 멀리는 아담과 아브라함, 가까이는 세겔과 뻔엘에서 주신 계시를 총괄하여서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장엄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이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된다(13-15절). 호세야도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뻔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였다(호 12:4).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포도주를 전제물로 붓고 또한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뻔엘이라고 불렀다.

4. 라헬의 죽음 (35:16-20)

1) 라헬이 아이를 낳음

라헬이 첫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30:24) 하고 기도하였는데 둘째 아들을 낳는 데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산파가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고 말한 것처럼, 이 일은 요셉의 이름에 담긴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었다.

라헬은 그가 소원한 대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었지만 난산으로 인해 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다. 결국 또 다른 아들을 원하던 라헬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면서 그 아들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 혹은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 이름하고 눈을 감았다.

2) 베노니에서 베나민으로

야곱은 라헬 때문에 14년을 무료로 일을 해 줄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였다. 그러한 라헬이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장사했다는 것, 그리고 베노니를 베나민으로 바꾸었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슬픔에 머물러서 ‘베노니’를 마냥 부른 것이 아니라 ‘베노니’를 ‘베나민’으로 바꾸었다.

베나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이라는 말은 힘과 권능을 표현하는 말이다(출 15:6, 12; 사 62:8). 따라서 베나민이라는 이름은 비록 야곱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 된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낳은 아들임을 고백한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늙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신 아들임을 인정하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다.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야곱의 행동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언약임을 배운다. 사람의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야곱의 행동이 혹시는 냉정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뻔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한 사람의 바른 모습인 것이다.

5. 르우벤의 범죄 (35:21-22)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 그의 서모(庶母) 밋하와 동침하는 불륜(不倫)을 범하였다. 젊은 르우벤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적인 욕구 때문이라면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하였다는 것, 그것도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여종 밋하와 관계하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후대의 일이지는 하지만,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삼하 16:15-23; 왕상 2:22) 아버지의 첩을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지도권이 이제 자기 것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다.

르우벤의 행동은 자신의 방식으로 장자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방식에 어긋난 일이었다(신 22:30). 이러한 방식으로 장자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구약 교회의 거룩한 성격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르우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당하였다(49:4). 베나민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열두 아들의 수가 차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르우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직을 취하려다가 그것을 박탈당하였다.

6. 야곱의 열두 아들 (35:23-26)

야곱이 헤브론의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에는 대가족을 이루어서 왔다. 하나님께서는 뻔엘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을 많게 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28:14-15). 베나민이 태어남으로써 야곱은 열두 아들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열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열둘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리를 메워서 열둘이 보존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도 열두 사도를 세워서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놓았다(계 21:12, 14).

7. 이삭의 죽음 (35:27-29)

헤브론을 떠났던 야곱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함께 이삭의 일생도 마감되었다(25:19). 이삭의 이름은 야곱에게 속아서 복을 준 그 장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삭이 적극적으로 한 일은 없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실만 기록되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이삭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49:31).

이삭의 죽음과 함께 25:19에서부터 시작하였던 이삭의 ‘톨레도트’는 끝난다. 이삭의 ‘톨레도트’이지만 이것

은 이삭의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즉 야곱의 이야기였다. 구약의 ‘톨레도트’는 그 사람의 뿌리를 캐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후손에게로 향한다. 이것이 세상의 족보와 성경의 족보의 차이이다. 구약의 계보는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태는 구약을 예수님에게 이르는 족보로 요약하였다(마 1장).

목상과 실천:

벤엘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1. 이전의 언약들과의 비교

벤엘에 올라온 야곱에게 내려주신 35장의 말씀은 처음 벤엘에서 말씀하신 내용(28장)뿐 아니라 세겜(34장) 압박 강(32장) 이삭의 복(28장)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복(1:28; 9:1, 7) 등을 언급하며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17장의 계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올라가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올라가신 사실이 강조된다(17:1, 22: 35:9, 13). 둘째, 17장에서도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35장에서도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셋째, 17장에서 자손의 번성과 왕에 대한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자손의 번성과 왕에 관한 약속을 하셨다. 넷째, 17장에서 땅에 대한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신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물려받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야곱의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다.

2. 처음 벤엘에서 나타나신 것과의 비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35:9).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은 벤엘에서 나타나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벤엘에서 두 번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할 것이고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점에서는 동일하다. 전에 하신 언약을 반복하셨는데, 이것은 야곱에게 더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더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벤엘에서의 두 계시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7절) 지금은 그 언약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는(9절). 둘째, 그때에는 하나님을 뵈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지금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셋째, 그때는 장소를 중심으로 ‘벤엘’이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언약을 창설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더 강조점이 있는 ‘엘 벤엘’이라는 지명을 함께 사용하였다. 넷째, 그때는 꿈에 나타나셨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말씀을 하시던 곳”이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강조된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사람의 정신이 별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이 성숙해 있었다. 다섯째, 계시의 내용도 더 풍성하다. 그때에도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압박 강에서 주신 이름을 확정해 주시면서 언약의 땅에서 새로운 이름을 갖고 살도록 하셨다.

3. 벤엘에서의 계시의 의의

아브라함이 애굽과 블레셋에서 이삭이 블레셋에서 각각 실패했었는데 야곱도 세겜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야곱의 실패는 더 나아가면 혼인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과 한 민족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벤엘로 올라갔고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계시의 내용을 집약한 복을 내려주셨다. 세상적인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

한 것으로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약의 복을 주시고 올라가셨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이 그의 믿음의 정점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겜에서 베엘까지 여행한 것은 그의 나그네 생활의 정점이었다.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베엘에 올라간 야곱은 가깝게는 압복 강에서의 새로운 이름과 베엘에서의 계시, 더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과 노아와 아담에게 주신 복을 모두 받았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복을 받은 야곱으로서는 이러한 계시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베엘에 성전을 지을 뿐 아니라 집을 짓고서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외적으로 단장품을 제하고 옷을 바꿀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었다. 베엘에 올라갈 뿐 아니라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었다(35:1).

그러나 야곱이 베엘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의 자식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고 결국에는 요셉이 팔리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으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다.

4.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땅에 들어왔으나 성전을 짓고 그곳에 머물면서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지는 야곱 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첫 독자들, 즉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신 가나안 원주민과 타협하는 모습을 생각한다. 야곱의 실패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야곱의 실패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다. 야곱이 베엘에서 받은 복과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복과 계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징계만이 있을 것이다.

35장 익힘 문제

1. 디나 사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빈 곳을 채우세요. (1절)
 - 1) 일어나 □□로 올라가라.
 - 2) 거기 □□□.
 - 3) 거기서 □을 쌓으라.
2. 베엘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절)
3. 베엘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든 가족은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4. 베엘로 올라가는 야곱의 일행을 주변 사람들이 추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5. 야곱은 베엘로 가서 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7절)
6. 베엘에서 죽어 양흔바곳이라는 나무 아래 장사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8절)
7. 라헬은 죽기 바로 전에 낳은 아들을 베노니아 불렀으나, 야곱은 무엇이라 바꾸어 불렀습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18절)
8.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의 소생대로 써보시오.
9. 라헬이 죽어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19절)
10. 1) 서모 빙하한 통가한 야곱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22절)
 - 2) 빙하는 누구의 시녀였습니까?

3) 이 사건은 어떤 일 뒤에 기록되었습니까?

11.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삭을 만나기 위해 간 곳은 어디입니까? (27점)